

壬戌譜 發刊辭

世孫 晉州柳氏大宗會長 柳承源

우리 晉州柳氏는 高麗中葉(十五代王 肅宗朝 一〇九五—一〇五)에 發身하신 金紫光祿大夫 中書令 左右衛上將軍公 (諱挺)은 始祖로하여 綿綿 九百年을 이어 내려온 名門 閥族으로서 其間 거룩한 여러 先祖님 들의 豐功偉烈이 끄치지 않았읍니다

이제 우리 柳門의 最初譜인 壬午譜(一七六二)가 出刊된 以來 甲子(一八〇四)、乙巳(一八四五)、甲戌(一八七四)、戊午譜(一九一八)에 이어 비록 六十五年만이라는 晩時之嘆은 있으나 여섯번째의 大譜를 出刊함에 이르니 그 기쁨 그 多幸 어찌 한 두마디로 足하겠읍니까만은 實로 우리 모두의 기쁨이요 感懷 또한 無量함은 非但 本人만이 아닐줄 압니다만 이 巨創한 일들이 기록하는데 있어서는 全國 宗親 여러분의 絶大하신 聲援과 協助에 힘입었음은 贅言不要이어나와 또한 이를 爲하여 心血을 기우려 刻苦의 나날을 보내신 世譜編纂委員長 承國 族弟와 常務理事 兼 本譜編纂委員會 總務委員 普馨族叔을 비롯한 여러 委員들의 수고로움 또한 至大한 것이니 이에 全宗親을 代表하여 深甚한 謝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이제 이 壬戌譜를 發刊함에 際하여 大宗會 會長으로서 꼭 發刊辭를 써야 한다기에 비록 譜學은 너무 아는 것이 없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무딘 붓으로나마 平素 지니고 있던 所感을 披瀝함으로써 이에 代할까 하는 바입니다

요즈음 젊은이들 中에는 族譜에 對한 常識을 모르는 것은 姑捨하고 祖上의 偉業이니 族譜가

어떠니 하는것은 時代錯誤요 現實逆行이라 嘲笑하는 이도 있습니다만 本人은 그것을 탓하기에 앞서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수 없는 心情입니다

○ 비록 族譜로 因한 弊端이 적지 않았음은 누구도 否認할 수 없겠습니다만 族譜가 한낱 兩班階層의 象徴物이나 자랑거리로 삼기위한 것은 아니니 그러한 沒認識은 族譜를 編纂하는 本來의 意義와 目的을 모르는 一部人의 認識不足에서 온것인즉 이것으로써 族譜發刊 自體를 否定하거나 또는 남의 일인양 傍觀한다는 것은 우리의 傳統文化를 송두리채 無視 또는 廢棄하려 드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것입니다

우리는 族譜가 지니는 本來의 價値와 重要性을 時代를 超越하여 毅然하게 우리의 傳統文化로서 또 氏族과 家庭의 寶鑑으로서 높이 評價하고 保存해야 할 줄 압니다

무릇 옛 文化遺産치고 그 어느것 하나 우리 祖上의 手澤이 어려 있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만은 이 族譜만큼 우리들 各個人에게 直接的이고도 感懷깊게 해주는 것은 다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宇宙萬象이 過去가 있어 現在가 있고, 現在가 있기에 未來가 展開된다는 것은 萬古不變의 鐵則입니다

따라서 人類世界에는 世界史가 있어 人類文化의 발자취를 밝혀주고 한 國家에 는 國史가 있어 先人의 精神과 思想을 다음 後人으로 하여금 이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氏族은 族譜로써 그 血統과 家風을 傳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血統과 家風을 傳하는 族譜가 單純한 冊子로만 傳해진다면 별 뜻이 없는 것이니 새 時代를 創造하는 새로운 人格과 力量이 이에서 찾아질 때 族譜의 眞正한 價値는 定立된다고 볼 수 있겠으며 族譜의 現代의 意義는 우리의 敎養으로 溶解되어 새로운 調和를 이루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近來 主體性이니 民族的 自尊心이니 自覺이니 하고 活潑히 論議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多幸한 일입니다만 西歐화가 곧 近代化요 近代화가 곧 自主獨立인줄 錯覺한 開化期以後의 우리 先人들의 歷史의 苦杯를 우리는 다시 되풀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第二의 近代化를 서두르고 있는 이 時点에서 우리는 우리가 指向할 뚜렷한 座標를 設定해야 할 줄 압니다 近代化의 基本은 뚜렷한 主體意識과 自尊心에 그 바탕을 두어야 하며 이를 爲해서는 우리 民族文化의 本質을 正確히 把握하고 이에 對한 透徹한 理解에 到達했을 때, 또 한 그것이 客觀적으로 優秀한 文化임이 立證되었을 때 비로소 主體意識이 確固해지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矜持야말로 참된 意味의 自尊心을 나게 할 수 있다고 本人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 意味에서 本人은 民族文化의 本質을 把握하는 捷徑으로서 우선 各自가 모시고 있는 族譜부터 깊이 理解하도록 努力할 것을 促求하고 勸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自己와 直接 血統적으로 連結되는 先祖의 거룩한 業蹟을 옹기 把握하고 理解하게 되면 自然히 여기에 愛着心이 생기고 그 後裔됨에 自尊心과 矜持가 생길 것이니 家門에 對한 自慢아닌 自尊心은 나아가 民族文化의 理解를 通한 民族的 自尊心으로 擴大昇華할 수 있는 것인즉 「溫故知新」이란 말 그대로 옛것 속에서 새로운 價値를 發見하는 眞正한 意味의 傳統의 繼承이 될 것입니다

祖國의 새 歷史創造라는 重責을 지닌 이 時代의 우리는 無批判的인 西歐化도 안 될 것이요 또 지난날의 固陋하고 非生産的인 固執쟁이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 傳統의 創造的 繼承者로서의 새로운 知性人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意味에서 우리는 宗親運動도 必要한 것이며 宗親會의 存立意義나 目的도 iese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卽 各門中마다 그 子孫으로 하여금 自己 先祖의 偉業이나 遺訓을 肅敬히 이어 받도록 힘써 矜持와 自尊心을 갖고 一舉手 一投足에 조심토록 한다면 自己 個人의 人格完成은 勿論、 나아가 國民敎育과 民族文化發展에도 크게 寄與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傳統思想인 孝·友로써 上下·左右가 맺어지고 어우러질 때 明朗社會 信義社會 福祉社會도 이루어질 것이니 이렇게 된다면 宗親運動은 決코 「氏族의 인 派閥意識을 觸發 助長하는 非近代的 非生產的인」 所謂 「近代化 沮害要素」라는 非難의 對象이기 보다는 도리어 꼭 必要한 存在요 運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統一과 平和는 서로의 特色을 살리고 理解하면서 共通分母를 찾아 이루어지는 調和에 있다고 볼 때、四海同胞니 汎世界主義니 하는 飛躍보다는 한 民族으로서 또는 한 氏族으로서의 特色과 矜持를 찾아 毅然한 主体性을 確立하고 서로의 調和를 追求해 나가는 것이 當面한 時代的 要求이며 民族的 使命이 아닌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제 이 글을 끝맺음 함에 있어 우리의 다음 世代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 우리 子孫들에게 다 시금 強調하고 싶은 것은 祖上은 나의 根本이니 나의 存在를 認定하는 者 어찌 祖上을 생각지 않을 수 있으며、 가지와 잎이 茂盛하기를 바라는 者 어찌 그 뿌리를 생각지 않으리요! 人間이 萬物의 靈長이라 함은 自己生命의 根源을 찾아 「되는 물보다 진하다」는 天倫의 關係를 認識하는 데 있을 것일진대 옛말에도 姓이 같고 本이 같으면 百代之親이라 하였거니와 우리가 親族을 만났을 때에는 祖上을 생각하게 되고 祖上을 생각하게 되면 이내 骨肉의 情이 샘솟는 것이 바로 天倫의 情입니다 新聞이나 雜誌 또는 길가다 같은 姓氏의 문패가 눈에 띄이면 다시 한번 보게

되고 行列이 같으면 만나보고 싶은 衝動을 느끼니 이것은 무엇을 意味하는가? 亦是 나도 모르게 「天倫」에 이끌리는 것이니, 바로 이 「天倫의 情」을 하나의 그릇에 담아 널리 나누어 모셔 億萬年 歲月이 흘러도 變치않게 保存하는 것이 다름 아닌 이 族譜인 것입니다

連綿한 실끝은 갈피와 秩序를 찾아 감아야 형클어지지 않을 것이며, 늘어나는 그물은 바르게 連結시켜야 흠어지지 않으며, 싱싱하게 자라나는 나무는 뿌리를 북돋아 주고 거름을 주어야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大譜를 編纂하는 일도 모두 그런 까닭입니다

悠久한 歷史속에 우리 氏族이 生成한지 近千年 그 동안 우리 先祖들이 無窮한 時空속에 묻혀 갔고 連綿한 血統을 이어 다시 새로운 時代의 後孫들이 그 社會를 떠받들고 삶을 누려 갈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祖上의 偉業을 기리고 그 子孫됨을 自矜할진대 祖上의 遺訓을 가슴에 새기고 그 遺德을 더욱 빛내는데 눈을 떠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모양이 바르는데 그림자가 삐뚤어질 수 없기 때문이요, 祖上의 넋이 항상 이 譜冊을 통해 우리 子孫들의 가슴속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예 『前世代의 쓰잘데 없는 遺物이니, 褪色된 過去에의 未練이니』하는 따위의 輕率한 생각은 말아야 합니다

삼가 머리 숙여 先祖 여러 어른들의 冥福을 빌며 우리 晉州柳門의 無窮한 發展을 祈願하면서 이번 壬戌譜 發刊을 契機로 더욱 追惟報本の 至誠으로써 모두가 以顯父母의 길을 닦아 나라의 棟樑이 되도록 서로 힘써 나가기를 當付하면서 이만 發刊辭에 代하고저 합니다

壬戌(檀紀四三一五年 西紀一九八二年)十二月 日

晉州柳氏世譜 壬戌譜序

譜者所以著世系 而明祖先之德業 別宗支 而謹倫序之敦睦 以啓子孫光祖昌業之門也 其有補於世教實大矣

惟我晉柳 自高麗上將軍公 得封氏姓之後 與國同休戚 豐功偉烈 貞忠大節 代不乏人 輝赫日月 而積德累仁 基命定命於萬世 以裕後昆 而至今爲一國之聞姓 猗歟盛矣 凡我同祖者 孰不肅敬起孝哉 粵昔戊午之譜 在國家板蕩之後 而幸得收拾南北諸族 以成大譜 其後屢經兵禍 蕩析離居者 不知其數 而在北諸宗 茫無會期 不勝慨然 其間屢易世代 生齒日息 有不容已者 自諸宗中 各成派譜 以備後日之大同譜 然當此萬國一家 文化交流之時 至於外國人 猶能對話通情 盡其交孚之道 而自國內 遇一同族 靦然不知其何派何祖之子孫 又不知行列之上下 而視作路人 可乎 此實仁人君子之所甚恥者也 故年前歲戊午春 各處諸宗 會於京師 謀所以編纂大同譜 以不肖推爲修譜委員長 使之推進事業 推讓之餘 不敢自外於敦叙典倫之事 眦勉從事 歷凡五年 而始克竣工 這間任事諸賢之勞 不可勝言 第因此譜之行 家家知尊祖敬宗之道 人人盡睦族愛親之禮 則其有補於國家風化之教 不啻萬一矣 乃爲之序 以證 來世後人續編之資焉

壬戌 一九八二年 十二月 日

大韓民國 學術院 正會員 哲學博士

韓國精神文化研究院長

晉州柳氏世譜編纂委員會 委員長

二十八世孫 承國 謹序

진주유씨세보 임술보서

족보란 것은 世系를 나타내서 선조의 德業을 밝히고 宗支(宗孫)을 구분해서 倫序의 宗支를 밝히고 하여
자손들이 조상을 빛내고 家業을 번창시키는 門을 열게 하는 것이니 그 世教에 보탬됨이 실로 크다 하겠다
우리 晉州柳氏는 고려 尙장공공께서 성씨를 封함을 얻은 이후부터 국가와 더불어 성쇠를 같이 하여 그
豐功·偉烈과 貞忠·大節이 대대로 끊기지 않고 日月처럼 찬란히 빛났으며 仁德을 쌓아 萬世에 柳門의 기반
을 안정하게 하여 후손에 물려주시어 이제 한 나라의 이름 있는 성씨가 되기에 이르렀으니 아 장하도다
무릇 우리들 같은 자손들이여 누가 엄숙히 孝心을 일으키지 아니하리오!
옛 戊午譜는 나라에 變란이 있는 후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다행히 남북의 여러 일가들을 두루 수습하여
大譜를 만들었다

그 뒤로 여러차례 兵禍를 겪는 동안 사방으로 흩어져 헤어진 사람이 부지기수이며 복에 있는 여러 종친
들은 까마득이 만날 날을 기약할 수조차 없으니 가슴 아프기 그지없다

그간 세대가 많이 바뀌었으니 자손의 수효가 날로 늘어나 할수 없이 여러 종중에서 각각 派譜를 만들어
뒀날 大同譜를 만드는 것에 對備는 하였으나 그러나 지금 萬國이 한 집안 처럼 문화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 이 때에 있어서 외국인들과 하고 까지도 대화를 하고 정을 나누며 교제를 넓히는 형편인데 자기 나라
안에서 같은 일가를 만나고도 전연 무슨 파인지 어떤 조상의 자손인지도 모르고 또 항렬자는 위인지 아래
인지 조차도 몰라 길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 처럼 본대서야 말이 되겠는가! 이것은 실로 仁人 君子의 때
우 부끄럽게 여기는 일이다

그래서 年前 무오년 봄에 각처의 여러 종친들이 서울에 모여서 대동보통 편찬할 것을 의논하여 불초를 修譜
委員長으로 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사양하던 나머지 倫理를 펴는 일에 감히 스스로 외면만 할수
도 없어서 열과 성을 다 해 일에 종사하여 어느덧 五年의 세월이 지나 이제야 겨우 마무리 짓게 되었다
그 동안 이 일을 맡아서 애써 주신 여러 종친들의 노고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다만 이 大同譜가 간행됨으로 해서 집집마다 조상을 높이고 종친을 공경하는 도리를 알고 사람마다 일가
간에 화목하고 친척을 사랑하는 예의를 다 한다면 國家風化의 가르침에 도움됨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에 서문을 써서 앞날 뒷사람들의 續編의 資料로 삼으려 한다

대한민국 학술원 정회원

한국정신문화연구 원장

친주유씨세보편찬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晉州柳氏世譜序

吾柳之播在國中 其麗不億 皆以高麗上將軍諱挺爲上祖 而其後有五世封君 至韓朝 又多簪纓 文學不祧 旌閭 專祠之賢 爲東方聞族 往時修譜之創自英廟甲辰年間始爾至國耻後戊午 凡五修 而自此不復能繼修者 已過六十餘年矣 及國權復而其歲又值戊午 則各派諸宗 會於漢京 爛商熟議 咸曰 修譜誠不可緩 但南北中阻 吾宗之在北者 離散已久 苦難收族 欲俟統一完修大譜 則歲月流邁 茫無津涯 姑修在南之宗 以俟他日 與北宗團合可也 於是 設大宗會於漢京 選出會長 總責譜事

在前修譜之時 無道路之便 通信之利 故有或世居荒陬 自作一門 而漠然不相聞知 以致漏落 違失大同之義 乃派遣多數任員 分擔各地修單 窮搜遍訪 期無一戶一人之漏落 以是延拖至于今日 而始入梓將事 諸賢之勞 不必多言 因此一舉 宗族更修敦睦之誼 不至於路人 上而無忝祖先一視之仁 下而啓發子孫敦本之心 豈不美哉 僉宗使永敏叙其事 永敏以識諛辭 終不獲命 乃謹叙如右云

大韓民國六十三年 壬戌(一九八二)冬至節

晉川君二十一代孫 永敏 謹識

진주 유씨세보 서문

우리 유씨가 이 나라에 흠어져 있음이 그 수 헤아릴 수 없이 많으나 그 모두가 고려의 상장군(上將軍) 휘(諱) 정(挺)을 윗조상으로 삼고 있으며 그 뒤五代가 봉군(封君)이었으며 이조에 이르러 또 훌륭한 벼슬과 문학과 공신 효열(孝烈) 전사(專祠)의 어진 할아버지가 많아 동방에 이름난 문벌이었다

옛날 족보를 다음에 처음 영묘(英廟) 갑진년(一七二四)간에 시작하여 국치(國恥) 日帝強占 후 무오년(一九一八)에 이르기까지 수보(修譜)한 것이 무릇 다섯번이었으나 이로부터 다시는 계속하지 못하기를 이미 六十年이 지났다

국권이 회복되어 다시 돌아온 무오년(一九七八)에 각 파 제종(諸宗)이 서울에 모여 난상숙의(爛商熟議)하니 모두 말하기를 「족보 따는 일은 진실로 늦출 수 없다 다만 남북이 가로막혀 우리 일가로서 이복에 사는

분은 떨어져 흠어진지 이미 오래되어 아주 거두기 어려우나 그렇다고 통일을 기다려 대보를 완수(完修)하려면 세월이 마냥 흘러 인제 할지 아득하니 우선 남쪽의 일가들만이라도 수보를 하고 후일을 기다려 일가들

을 단합함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이에 대중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회장을 선출하여 보사(譜事)를 총책임지게 하였다 예전에 족보를 다음 때에는 교통이 불편하였고 또 통신의 편리함도 없었으므로 후 대대로 벽지에 살아가

작일문(自作一門)이 있어도 막연하고 서로 알지 못하여 조보에 누락되었으니 대동지의(大同之義)에 어긋남이라 이에 많은 임원을 파견하여 각지의 수단(收單)을 분담하여 애써 구석진 곳까지 두루 찾아 다니며 한 집 한

사람이라도 빠짐이 없도록 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시일이 지연되어 오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인쇄에 불이게 되었다 여러 종인들의 수고로움이야 이루 말할 수 없으나 이 한번 수보(修譜)로 인하여 우리 종족(宗族)들

이 다시 돈독지의(敦睦之誼)를 닦고, 일가를 길가는 사람 보듯이 하지 말고, 위로는 많은 자손을 사랑하는 조상의 인(仁)을 더럽힘이 없도록 하고 아래로는 자손들이 근분을 돈독히 하는 마음을 열여 주는 것이니 어

찌 아름답지 아니하라 여러 일가 어른들이 영민(永敏)으로 하여금 그 일을 적어라 함에 영민이 학식의 부족함을 들어 사양하였

으나 끝내 허락의 명을 얻지 못해 이에 삼가 우와 같이 적노라 대한민국 六十三年 임술(一九八二年) 동지절

진천군二十一代孫 영민 삼가 적음

柳挺

高麗 金紫光祿大夫 中書令 左右衛上將軍 (一本作 大護軍)

○晉康府院君 已下四世封君 今攷諸僻隱集而錄之

○夫人姓氏墓所 俱無傳焉

○現日本帝室博物館所藏 崔忠獻墓誌銘云一記其 母曰晉康國大夫一人柳氏 金紫光祿大夫中書令上 將軍諱挺先之女也一考 據明白今後當以金紫光 祿大夫中書令上將軍稱 職也

子淑

神虎衛 保勝中郎將 晉寧府院君 夫人牛峰崔氏

父 贈侍中 元浩 祖貞現 晉祖周幸

女崔元浩牛峰人

贈侍中 父貞現 祖周幸 子忠獻 (本名鸞) 壁上三韓三大大臣 開府儀 同三司 守太師 門下侍郎 同中書門下平章事 上將軍 上柱國 判兵部 御史臺事 太子太師

一一〇五年 特進 訂謫逸德安社濟世 功臣 門下侍中 晉康郡開國侯 一一二二年 文經 武緯 勸理借安功臣 諡景成 子忠粹 輸誠濟亂功臣 三韓正匡中大夫 鷹揚軍上將軍衛尉 卿 知都有事柱國 女晉州柳淑 神虎衛保勝中郎將 晉寧府院君 父挺 子敦植

子敦植

植譜作軾 史作植 今從史 通議大夫 監門衛攝上將軍 晉原府院君

○公高麗高宗四年 (一一二七) 以後軍兵馬使 討平契 丹遺種金山金始二王子 事 見麗史及東國兵鑑

夫人金氏 父金吾衛精勇將軍 升

高宗三十一年 甲午 (一八九四) 後孫大源等 改堅而建石閣

子洪林

初諱洪文 一作霖 號晴齋 銀青光祿大夫 樞密院副使 戶部尚書 致仕

贈金紫光祿大夫 門下侍郎 同中書門下 平章事 判典理司事 晉陽府院君

正祖丁未 (一七八七) 二十世孫雲羽補黃山時 詣晉州元堂里 尚書公 亭子舊址 則村民尚以 公諱字呼其亭址 故 立石有識曰 「柳尚書某遺址」

遺址碑文 撰淵齋宋文忠公 秉璿 石閣銘 撰外裔慶尚道 觀察使 李公載現 公實記 撰後孫大源 夫人忠州梁氏 父尚書戶部侍郎 寶文閣待制 知製誥 南一 祖殿中省內給事 玄儒 曾祖太子詹事 元梯

子楸

匡靖大夫 都僉議贊成事 判民部事 上護軍

○公高麗忠烈王二十五年 (一一九九) 七月丁未 以密直使如元賀聖節事 見麗史

夫人海州崔氏 父秘書少監 收 外祖兵部侍郎 申景盼

奉常大夫 軍簿總郎 一本作 朝奉大夫 晉興府院君 夫人南陽洪氏 父工部尚書 百壽 祖左右衛大將軍 諶 曾祖檢校秘書監 濟先

子仁茂

朝顯大夫 版圖總郎 夫人漆原尹氏 父軍簿判書 鷹揚軍上護軍 秀 祖 郎將 松碑 曾祖戶長 居甫 外祖密直副使務安朴玆

○公高麗忠烈王廿四年九月 以柳琚爲副承旨見麗史

夫人辭氏 父侍中永保 父詳見譜系弁證舊譜合錄 今亦當依例收入 而後孫多以先代碑狀爲 疑只錄二世 以俟論定 或別行譜錄焉

匡靖大夫 檢校 僉議評理 開城尹 一本作 晉城君 晉州邑誌 一作政丞 夫人文化柳氏 父文山君 成庇 祖密直使 淳 曾祖攝上將軍 彥琛 外祖贊成 長興任翊 公坐在坡州虎尾里饑峴 癸坐云 故依豐德宗 人單子入錄

子槩

○善川君柳舜翼家譜 摠郎公下有澤一世 而官爵配位并不錄 司諫公文通世系圖及 諸宗譜錄 俱無所載 鄭公崑壽 許公涵 皆以爲誤錄無疑云

○安東權氏 朝請郎 知靈光郡事 父花原君 仲達 祖右政丞 漢功 曾祖僉議評理 頤 外祖典書 漆原尹吉孫 而後孫誤認 自文化移本 而別行譜錄 詳見譜系 弁證記事及 甲辰譜序

子惠蓀

見7頁

子之澁

見8頁

子之濔

見12頁

子之濕

見21頁

女尹恒

侍中 漆原府院君 前室无后 父贊成吉甫

女洪彥猷

南陽人 前室 父府院君 戎 子瓊摠郎 女順天朴元象 典書 (曾孫朴彭年參判)

子承秀

茂珍府使 舊譜不錄 見許涵編 百家譜 丁時述編 諸姓譜

女金孟誼

承旨

子琚

承旨 高麗忠烈王廿四年九月 以柳琚爲副承旨見麗史

子棚

一作明 教授 (无)

女金孟誼

承旨